

# 유럽

## Europe

유럽은 52개국이 포함된 인구 약 7억3천만 명(2010년 통계)의 땅으로서, 전체 면적은 22,978,500 평방 km로서, 남한의 232배에 해당하는 광활(廣闊)한 땅으로서, 초대 기독교의 모판의 역할을 한 곳으로도 볼 수가 있다. G.K.C. 유럽 선교는 2012년 8월 현재, 9개국에 23명의 선교사(4명의 현지인 선교사 포함)가, 교회 사역과, 현지인 T/D 사역과, 입양아 사역 등을 잘 감당하고 있다.

즉 스웨덴, 노르웨이, 네델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에서 열심히, 유럽의 명목상(名目上)의 기독교인(주로 카톨릭 신자, 정교회 신자, 성공회 신자, 명목상의 개신교인들 등)을 깨워서, 복음을 체험케 하며, 크리스찬의 신분과 사명을 회복케 하며, 그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헌신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도록 하는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으며, 유럽에 디아스포라(diaspora)로 들어와서 사는, 수많은 회교권, 힌두교권, 불교권 등의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부모형제와 일가친척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는 21세기의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인, 디아스포라 선교 전략과, 소수민족 선교전략 및 차세대 선교전략과도 일맥상통(一脈相通)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럽은 아프리카권의 선교와, 중. 남미권 선교와, 구소련권의 선교와, 아시아권의 선교 및 이스라엘 선교 및 유대인 선교의 중추적(中樞的)인 역할을 감당할 사명이 있는 지역으로서, 초대교회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

여, 선교의 불을 받아서,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유럽에 살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모든 한인 크리스찬들의 사명이 라고 본다.



# 프랑스

## France



### 개요

프랑스는 서유럽의 큰 국가로 그 풍부한 문화와 역사로 유명하다. 유럽의 최고 정점인 몽블랑은 프랑스 알프스에 위치해 있다. 프랑스는 높은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건강한 경제를 갖고 있지만, 국민들은 정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높은 세금을 물고 있다. 수세기 동안 프랑스는 5개 대륙에 방대한 해외 식민지를 보유했지만, 제1차 세계대전 후 제국의 대부분은 해체되었다. 이 나라는 현재 유럽연합을 선도하는 회원국이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국가이긴 하지만, 프랑스는 지금 대개 복음화가 되어 있지 않다. 프랑스 민족의 대부분은 단지 명목상으로만 기독교인이고, 동유럽과 북아프리카에서 온 수백만의 이주민들은 대개 복음을 들어본 적이 결코 없었다.

수도: 파리 / 인구(2010): 1050만명

인구: 65,350,000명(2011통계)

환율(현지화폐/US\$):

국제전화코드: +33

인터넷 도메인: .fr

입국비자: 90일 무비자(미국, 한국여권)

### 종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비종교국으로서, 1789년 대혁명 이전 개혁자들과 반대자에 대한 혹독한 박해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무종교/기타 19.2%. 프랑스에는 1789년 이래로 강한 반성직자 집단이 있다.

회교 7.7%. 북아프리카인, 중동인, 서아프리카인, 150,000에 달하는 프랑스인.

유대교 1.1%, 불교 0.3%, 중국 종교 0.2%.

기독교 71.5%, 명목 50.5%, 활동 21%. 출석율 13%, 성장율 -0.6%. (개신교 1.77%, 성장율 0.3%.)

### 종족

미전도 종족 수(2011): 34종족(프랑스 인구의 8.6%)

귀화, 동화, 불법 이주, 이러한 문제를 모호하게 만드는 치열한 반외국 선전 등으로 토착, 이주 소수종족그룹의 수치는 근사치다.

토착인 86.3% - 프랑스인 74.7%, 지역 소수집단 9.7%. 기타 소수집단 1.9%. 국제 소수집단 13.7%, 북아프리카/중동 7.3%.

기타 유럽 4.6%.

# 프랑스

## 유학생과 현지인의 복음화



### πισσ 선교사

송석배 / 김은영 선교사  
 송준호 (정희진), 야긴, 명호(김경란), 로이스  
 1996년 2월 파송

### 신교지 연락처

19 rue bertie Albrecht 92220 Bagneux FRANCE  
 W: 33-60942-5144 / H: 33-14994-0375  
 C: 33-61854-0279  
 E-Mail: parisgrace@hanmail.com  
 Website: [http://cafe.naver.com/eunhefrance\\_cafe](http://cafe.naver.com/eunhefrance_cafe)

### 기도 제목

1. 훈련받고 있는 유학생들을 통해 불어권 아프리카에 구체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2. 훈련받고 있는 유학생들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한국 땅이 복음으로 점령되는 것
3. 프랑스 은혜교회에 출석 중인 프랑스 현지인들을 통해 프랑스 땅이 복음으로 점령되는 것
4. 프랑스 지방 곳곳에 지역교회가 20개 이상 세워지는 것(현재 7군데)
5. 양육 훈련이 가능할 수 있는 넓은 선교센터가 속히 구입 되는 것(주여! 응답에 감사합니다.)

### 지역 소개

파리에 현지인 교회를 임대하여 대부분 유학생들이 모여 예배하고 있다(주일예배, 화요성경공부, 토요일기도모임). 주일예배는 미국 은혜교회의 주일 설교 영상을 통해 말씀을 받고, 화요성경공부는 김은영 선교사가 인도한다. 6개 지역(Nancy, St-etienne, Tours, Clermont-Ferrand, Caen, Nice)의 지방교회에서 주일설교 동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으며, 송석배, 김은영 선교사, 송준호 전도사가 2주에 각 지방교회를 한번씩 순회 방문하여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다. 일년에 한번 Paris 사랑의 불꽃 행사를 통해 새신자 전도와 사망자 발굴에 전념한다. 사역의 목표는 훈련된 유학생들을 통한 캠퍼스 전도다. 또한 불어권 아프리카를 겨냥하고 있다. 현재 약 15명 정도의 불어권 현지인들이 교회를 출석하며 양육받고 있다.





# 독일

## Germany



### 개요

독일은 북부 유럽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 대부분의 국민은 게르만족이지만, 다른 유럽 민족이나 중동 민족도 꽤 있다. 국토는 활짝 트인 해안평야지대에서 아주 높은 바바리안 알프스 산맥에까지 이른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굴욕적으로 패배한 이후, 독일은 공산국인 동독과 민주국인 서독으로 나뉘었다. 1990년 유럽 공산주의가 퇴락하면서, 2개의 나라는 한 국가로 재통일되었다. 서독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경제를 누리던 나라 중 하나였지만, 휘청거리던 동독 경제를 되살리는 데 드는 비용은 이 나라를 침체로 몰아넣었다. 독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국립 교과는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개신교도와 카톨릭 교인은 단지 명목상으로만 기독교인이다. 또 외국에서 이주해온 많은 이들은 복음을 결코 들어본 적이 없다.

수도: 베를린

면적: 357,050 km<sup>2</sup> (63위)

주언어: 독일어

인구(2010): 345만명

환율(현지화폐/US\$):

국제전화코드: +49

인터넷 도메인: .de

입국비자: 90일 무비자(미국, 한국여권)

### 종교

종교의 자유가 있으나 정부와 카톨릭, Protestant Established Church(EKD) 간에 종교 교육, 라디오, TV, 국가 채널을 통한 교회세 등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독의 공산주의 아래서 교회는 상당한 종교의 자유를 얻어냈지만, 교묘한 압력과 타협, 비밀 경찰에 의한 지도력 침해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상처를 입었다.

무종교 21.6%. 통일 당시 동독 인구의 69% 이상이 교회와 전혀 연관을 갖지 않은 상태였다.

회교 2.5%. 기타 0.1%.

기독교 75.8%. 최대 73.7%; 개신교 37.1%, 최대 37%.

### 종족

미전도 종족 수(2011): 19종족(독일 인구의 4.8%)

독일인 93.4%. 약 500만 이상의 독일인이 동부 유럽과 구 소련에 살고 있다.

소수 토착인 0.4%.

유럽인 집단 1.74%.

중부와 동부 유럽인 1.5%.

중동인 2.71%.

아시아인 0.25%.

# 독일 - 프랑크푸르트

## 유럽 선교의 전차부대



### 피송 선교사

양창모 / 옥경 선교사  
희규, 수진  
2006년 4월 파송

### 선교지 연락처

Josef Benner Weg1 65934, Frankfurt am Main,  
Germany  
W: 49-69-3899-7004 / F: 49-69-3899-7008  
C: 49-177-765-7100  
E-Mail: davidcmyang@gmail.com  
Website: www.gracechurch-fra.de

### 기도 제목

1. 독일과 유럽 터키와 모슬렘권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24시간 365일 중보기도 하는 센터가 프랑크푸르트 은혜교회에 세워지길
2. 어린이 교회학교가 부흥되도록
3. 내년에 터키에서 사랑의 불꽃이 개최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지도자들이 계속 배출될 수 있도록
4. 사랑의 불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게 해 독일과 유럽에 그리스도의 지도자를 세우도록, 인력과 물력이 확보되도록
5. 러시아계 독일인들과 터키계 독일인들(2~3백만)을 위한 신학교를 할 수 있도록
6. 독일과 유럽의 선교를 위해 동역하는 현지 교회들을 많이 붙여주시도록

### 사역 소개

40년 전 이곳에 한인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독일과 유럽의 영적회복과 터키를 비롯한 모슬렘권의 복음화, 그리고 땅끝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다. 이 모든 사역을 종합해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러시아계 독일인들을 위한 인카운터 사역, 일대일 지도자 반 사역, 사랑의 불꽃을 통한 사랑의 크리스찬 지도자 양성, 찬양 집회, 율동 보급으로 독일 부흥의 초석을 마련하고 있다.



# 독일 - 뒤셀도르프

## 유럽 선교의 특공대



### 파송 선교사

장준서 / 형주 선교사  
영은, 대찬, 승찬  
2006년 6월 파송

### 선교지 연락처

Brinckmannstr 15 40225, Duesseldorf, Germany  
W: 49-211-239-8856 / H: 49-211-239-8856  
C: 49-177-662-2038  
E-Mail: pjschang@gmail.com  
Web: www.gracechurch.de

### 기도 제목

1. 전도의 문이 열려 현지인들의 영혼구원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2. 교인들이 참 제자가 되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3. Basket Operation이 잘 정착되도록
4. 뒤셀도르프에 10만의 영혼구원이 일어나도록
5. 독일과 유럽의 나라들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 지역 소개

뒤셀도르프 은혜교회는 1995년 박종혁 목사가 지역 사회 복음화와 유럽 및 타지역의 선교를 위해 개척하였다. 2006년 미국 은혜한인교회에서 장준서 목사를 독일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제 2대 담임으로 취임시키고 더욱 사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뒤셀도르프 은혜교회는 세계선교를 위해 청년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훈련시키며 2세들과 유학생들을 깨워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고 있다. 도시 복음화를 위해 현지인 목회자들과의 연합에 힘쓰며 분기별로 연합 부흥회를 개최하며 중보기도모임을 가지고 있다. 예배는 한인 예배와 인터내셔널 예배로 주일에 두번 드리며, 프레스 디아스와 부흥회 및 수양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성경공부를 통해 말씀 중심의 균형잡힌 건강한 신앙인으로 양육하고 있으며, 노방전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노르웨이

## Norway

윤반석 / 정자 선교사 파송



### 개요

유럽에서 5번째로 큰 국가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서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어업과 제재업에 중사해온 국가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이후로 광업과 제조업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철을 이용한 합금과 금속합금 부문에서 세계 최대 수출국에 속한다. 서유럽 최대의 근해 유전, 천연 가스 산지와 유럽 최대의 티탄 광석 매장지가 있으며, 수력발전과 마그네슘 금속 생산에 있어 세계 최대 생산국에 속한다. 이 나라는 세습적 입헌군주국이다. 1814년에 채택된 노르웨이 헌법은 수정된 단원제 의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포괄적인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다. 바이킹 시대에 속하는 고고학적 발견, 북부 램인의 문화, 진보된 디자인 학교 등의 자극으로 예술, 공예, 산업 디자인이 나란히 꽃피고 있다. 가구, 에나멜 그릇, 섬유, 식탁, 보석 디자인 등은 역사적·민족적·전위적 양식을 반영하기도 한다.

수도 : 오슬로 / 59°56'N 10°41'E

면적 : 324,220 km<sup>2</sup> (68위)

주언어 : 부크몰어, 뉘노르스크어 / 사미어, 핀란드어

정부형태: 단일 입헌 군주제

인구: (2011통계) : 5,009,150명

국제전화코드: +47

인터넷 도메인: .no

입국비자: 90일 무비자(미국, 한국여권)

### 종교

루터교회가 국가 공식종교이나 다른 교단이나 종교에 대해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있다.

무종교/기타 4%,

회교 0.5%, 파키스탄, 투르크, 쿠르드, 아랍 등.

유대교 0.02%, 불교/중국종교 0.04%.

바하이교 0.04%.

기독교 95.4%, 명목 5.2%. 최대 90%, 성장률 0.2%; 개신교 94%, 최대 88.7%, 성장률 0.1%

### 종족

미전도 종족 수 (2011통계) :14 종족(노르웨이 인구의 3.1%)

노르웨이 95.7%

기타 토착 1%.

기타 유럽 2.2%.

기타 1.1%.



# 오스트리아

## Austria



### 개요

오스트리아는 중부 유럽, 독일의 남단에 위치한 독일어 사용 국가이다. 알프스 산맥이 남쪽과 서쪽에 있고, 다뉴브강의 평야가 북쪽과 동쪽을 차지하고 있다. 이전 공산권이었던 동구와의 무역이 산업경제에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한때 넓은 영토의 영향력이 있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중심이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은 여러 국가로 분할되었다. 1938-45년에 독일의 점령 이후에, 오스트리아는 엄격한 중립외교를 채택했다. 그러한 입장은 오스트리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던 1995년에 끝났다. 오스트리아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국민의 80% 이상이 카톨릭 신자임을 고백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아무 교회에도 나가지 않고 있다.

수도: 빈

면적: 83,871 km<sup>2</sup> (113위)

주언어: 독일어 / 슬로베니아어, 크로아티아어, 헝가리어

정부형태: 연방공화국

인구: 8,414,638명(2011 통계)

국제전화코드: +43

인터넷 도메인: .at

입국비자: 90일 무비자(미국, 한국여권)

### 종교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며, 또한 카톨릭과 루터교 Evangelische Kirche 모두 국교 회로서의 지위를 특별히 보장받고 있다.

무종교/기타 8.2%.

회교 1.4%. 터키인, 유고슬라브인 그리고 이란인.

유대교 0.08%(1934년에 2.8%).

바하이교 0.02%, 불교 0.01%.

기독교 90.3%, 최대 36%. 성장율 -0.2%; 개신교 5.3%. 성장율 -1.2%.

### 종족

미전도 종족 수(2011): 7종족(오스트리아 인구의 4.4%)

토착인 96%. 독일어 사용

이주민 4%.

난민: 43개국에서 온 380,000명이 등록되어 있다. 약 600,000명이 오스트리아 인구로 흡수되었다.



# 오스트리아

## 유럽의 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 파송 선교사

김정관 / 근자 선교사  
진아, 재형  
1994년 5월 파송

### 선교지 연락처

Amraserseestr. 36 6020 Innsbruck, Blumauer-  
gasse. 6 Stg 1 1020, Wien, Austria  
W: 43-512-584984 / F: 43-512-362599  
H: 43-512-362599 / C: 0699-10590147  
E-Mail:ck.Pastorkim42@hanmail.net, ck.kim@  
chello.at

### 기도 제목

1. GMI 파견 협력 사역자가 오스트리아에 파견되도록
2. 오스트리아 사랑의 불꽃(유럽 현지인 사역을 위해)을 위해
3. 오스트리아 다민족 문화 행사를 위해

### 사역 소개

태권도(공인 9단) 클럽을 계약, 지도하여 현지 인들과 접촉하였고, 현재 인스부룩 실로암 교회와 비엔나 만나선교교회를 개척하여 사역하고 있다. 유학생들에게 TD를 다녀오게 한 후, 찬양 선교단(찬양, 위십, 부채춤)을 조직하여 오스트리아 티롤 주 전역에 무료 순회 공연함으로써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자비 목장 체육관을 운영함으로써 매년 단체행사(어린이, 청년, 성단)를 실시하고, 다민족 문화 행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사랑의 불꽃은 청소년들에게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 이탈리아

## Italy



### 개요

이탈리아는 장화 모양의 반도와 지중해의 2개의 커다란 지중해 섬으로 되어있다. 북부 이탈리아는 고도로 산업화 되어있고 부유하지만, 남부 이탈리아는 농업지역에다 상대적으로 가난하다. 포도가 주요 농업작물이고, 의류는 제조업의 선도적인 생산품이다. 성황을 이루는 관광업이 주요한 수입원이다. 이탈리아는 고대 로마제국의 본국이다. 수세기동안 분열되어 있다가, 1870년에 단일국가로서 이탈리아는 통일되었다. 공화정부가 1946년에 세워졌지만, 그 이후로는 50개이상의 정부가 이어 들어섰다. 1990년대에는, 완전히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로 말미암아 대중적인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탈리아는 대개가 로마 카톨릭교이다. 카톨릭교의 본산지인 바티칸시가 로마 내에 위치해 있다. 대부분의 이탈리아인들은 거의 교회에 나가지 않으며, 복음주의자도 거의 없다.

수도: 로마 / 41°54'N, 12°29'E

면적: 301,336 km<sup>2</sup> (71위)

주언어: 이탈리아어 / 독일어, 불어, 슬로베니아어

정부형태: 공화국

인구: 60,681,514명(2011 통계)

국제전화코드: +39

인터넷 도메인: .it

입국비자: 90일 무비자(미국, 한국여권)

### 종교

로마 카톨릭의 국교화가 1984년에 무효화되어 모든 종교는 법적으로 동일한 자유를 갖게 되었다.

무종교/기타 17.7%, 거의 모두가 카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회교 1.9%. 유대교 31,800. 바하이교 5,000.

기독교 80.1%. 성장율 -0.2%; 개신교 0.82%. 성장율 2%.

### 종족

미전도 종족 수(2011): 11 종족(이탈리아 인구의 11%)

이탈리아인 92.1%. 부유하고 급진적인 북부 사람들과 가난하고 보수적인 남부 사람들 간에는 깊은 문화적 차이가 있다.

사르디니아인 2.7%, 4개의 사르디니아 방언을 사용.

티롤인 0.5%. 북동부에 거주하며 오스트리아식 독일어 사용.

프리울리아인/라딘인 0.95%. 북동부에 거주.

기타 유럽인 1.75%. 반 정도가 외국에서 출생.

중동인/아프리카인 약 1.9%.

아시아인 0.1%.

# 이탈리아

## 유럽 선교 공동체



### 파송 선교사

박상연 / 병희 선교사  
주연, 아론  
2003년 9월 파송

### 선교사 연락처

Via Frigia 25, 20126 Milano, Italy  
W: 39-02-257-0249 / C: 39-347-093-5486  
F: 39-20-9170-5335  
E-Mail: sypark@mimich.org  
Web: http://www.mimich.org

### 기도 제목

1. 선교관(신학교 및 영성 훈련장) 리모델링이 조속한 시일에 이루어 지도록
2. 유럽 연합 신학교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이사진 구성, 교수영입, 학생모집, 운영비용)
3. 유럽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도록
4. 유럽을 위한 교회가 질적 양적으로 부흥하여 유럽선교를 감당하도록
5. 매월 불입하는 교회 건물과 선교관 은행 용자금 불입에 차질이 없도록
6. 한인 유학생들이 유럽선교에 헌신하도록
7. 유럽선교의 비전을 가진 동역자들이 함께 팀사역을 할 수 있도록
8. 정치, 경제 공황 중에도 교회가 어려움이 없도록
9. 목사의 영력과 건강, 가족들을 위하여

### 지역 소개

TD와 Encounter를 통한 청소년과 현지인 및 현지인 목회자 영성훈련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 신학교 설립으로 차세대 선교사 및 목회자를 양성, 유럽 전역에 파송하여 교회 설립 운동을 추진하며, 선교관을 청소년 영성 훈련장으로 개방하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고 있다. 현지인 동역자들을 훈련하기 위해 매년 TD와 Encounter에 초청하고 매년 10회 이상 모임을 갖고 기도회 및 신앙과 사역을 나누길 계획하고 있다. 교회의 자원이 전문 성악가들의 헌신으로 년 1회 이상 극장을 빌려서 찬양전도집회를 개최한다. 지속적인 물질 지원과 인적 협력으로 현지인 지도자를 훈련해야 할 것이다.





# 네델란드

## Netherlands



### 개요

네델란드는 북해 연안, 서부 유럽에 위치해 있다. 육지의 40% 이상이 바다, 호수나 늪지에서 물을 퍼내고 바닷물을 막기 위해 흙제방을 쌓아서 만들었다. 네델란드는 제조업, 농업과 무역에 기반을 둔 다양하면서도 굳건한 경제력을 갖고 있다. 네델란드는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무역국 중의 하나였고 안정된 입헌군주국이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완전히 생활부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네델란드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세속화 과정과 법률제정의 움직임이 그러한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은 기독교인임을 고백하고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있다. 오늘날 네델란드는 퇴폐적이고 지나치게 관용적인 사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수도 : 암스텔담 / 52°21'N 04°52'E

면적 : 41,526 km<sup>2</sup> (131위)

주언어 : 네델란드어, 프리지아어

정부형태 : 공화국

인구 : 16,847,000명(2010년 통계)

국제전화코드 : +31, +599

인터넷 도메인 : .nl

입국비자 : 90일 무비자(미국, 한국여권)

### 종교

종교의 자유가 있으나, 꾸준한 세속화와 반차별법이 관용이라는 미명 아래 기독교인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무종교 30.6%. 대부분이 세속화된 기독교인들. 실제 비율은 아마 35%일 것이다.

회교 2.7%, 터키인, 북아프리카인, 중동인, 인도네시아인, 일부 수리남인.

힌두교 1%, 수리남 아시아인, 스리랑카 타밀인.

불교 0.9%. 중국인과 기타.

유대교 0.10%. 2차 대전 전에는 1.4%였음.

기독교 64.7%. 성장률 0%; 개신교 28.3%. 성장률 -0.6%.

### 종족

미전도 종족 수 (2011): 13종족(네델란드 인구의 8.2%)

토착인 93.4%. 네델란드인 13,450,000; 프리즐란드인 525,000. 전 식민지인 2.3%. 수리남 225,000; 앤티리스/아부바 60,000; 폴루카인(인도네시아) 45,000; 자바 7,500; 기타 인도네시아 10,000.

기타 4.3%.

# 네델란드

## 영적 재부흥이 필요한 유럽의 문



### πισ송 선교사

정윤희 선교사  
1991년 7월 파송

### 신교지 연락처

Grace Netherland Mission  
Leeuwenborchweide 53, Helmond  
Netherlands, 5709 SB  
Cell. 31-6-20000912  
Email. judychong@hanamail.net

### 기도 제목

1. 정윤희 목사, 김홍중 집사의 성령충만을 위해
2. 인터네셔널교회 (Amsterdam Grace Church) 부흥을 위해
3. 유럽의 잠자고 있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깨우는 교회가 되도록
4. 입양자들 가운데 네델란드와 유럽 영적부흥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 양성을 위해
5. 한글 학교 운영 및 한국문화 축제를 통해 입양자들의 양부모 및 가족과 친구들과까지 전도가 가능하도록

### 지역 소개

1988년도 네델란드에서 입양자 선교가 김민섭, 린다 목사 부부의 사역으로 시작되었다. 정윤희 선교사는 그 당시 통역 및 청소년 담당으로 동역을 하다가 1995년에 김민섭목사님 부부로부터 네델란드 선교를 인계 받았다. 입양자들로 구성된 목회생활과 한국문화제를 통해 사역을 해왔지만 2000년도에 들어서서는 입양자들만의 목회가 아닌 현지인 교회로 바뀌어 인터네셔널 교회(네델란드어 및 영어로 설교) 목회와, 한글학교 운영, 기독교 문화센터 운영 등으로 발전 성장하였다.

### 입양자 선교

한글학교 운영 및 문화사역, 입양자 및 가족 상담 사역, 입양자 협회 아리랑 공식 상담자 (counselor), 각 지역에서 입양자 소그룹 모임 성경공부, 찬양집회, 현지교회 Network (입양자들 전도하여 신앙생활을 하게함)





## 스웨덴

### Sweden



#### 개요

스웨덴은 산악과 삼림으로 뒤덮인 스칸디나비아 국가이다. 이 나라는 원목재와 철광석, 수력에 기반을 둔 번영된 산업경제를 갖고 있다. 또한 확대된 사회보장제도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국민들은 정부의 사회부조에 대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스웨덴은 1523년에 독립했다. 한때는 스칸디나비아 제국을 통치하며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 중 하나이기도 했다. 175년 동안 외국문제에 관한 한 중립을 지켰으며 그러한 정책이 양대 세계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었다. 스웨덴이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1995년에 중립정책은 끝났다. 스웨덴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루터파 교회가 국교이고 모든 시민들은 다른 종교를 요구하지 않는 한 루터파로 등록이 된다. 국민 대부분은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지만, 95%는 거의 또는 전혀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수도: 스톡홀름 / 59°21N', 18°4E

면적: 449,964 km<sup>2</sup> (55위)

주언어: 스웨덴어, 사미어, 핀란드어

정부형태: 민주공화국

인구: 9,415,295명(2011 통계)

국제전화코드: +46

인터넷 도메인: .se

입국비자: 90일 무비자(미국, 한국여권)

#### 종교

루터교가 국교이지만 점진적인 분리가 진행되고 있다. 자신이나 부모가 다른 종교를 요구하지 않으면, 스웨덴 국민은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교인이 된다. 다른 교파나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다.

무종교/기타 대략 34.9%

회교 0.8%. 거의 대부분이 이주민.

유대교 0.19%.

기독교 64.1%, 최대 59.3%, 출석율 5%. 성장율 -2.7%; 개신교 60.4%, 최대 55.7%, 성장율 -3.1%.

#### 종족

미전도 종족 수 (2011): 8 종족(스웨덴 인구의 1.5%)

토착인 91%.

기타 스칸디나비아인/발트인 3%.

기타 외국인 6%.

# 스웨덴

## 스칸디나비아 반도 복음화의 센터



### 피송 선교사

이광섭 / 명자 선교사  
 신민, 기라, 기옥  
 1991년7월 파송

### 신교지 연락처

Stigbergsilden 5, 41463 Gothenburg, Sweden  
 W: 46-31-711-0815 / F: 46-31-711-5830  
 H: 46-31-282-310 / C: 46-70-605-4988  
 E-Mail: kwangmyung\_ab@yahoo.com,  
 Kwang.myung@swipnet.se

### 기도 제목

1. 유럽의 잠자고 있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깨우는 교회가 되도록
2. 교회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3. 선교사님의 가족이 성령과 말씀과 은혜와 기도가 충만하도록
4. 연합사역을 통하여 전 유럽에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널리 전파하도록

### 사역 소개

1989년 ETD 3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체험한 이래, 평신도 선교사로서 스웨덴 은혜한인교회(Video Church)를 통하여 스웨덴 현지 교민의 복음화에 헌신하고 있다. 또한 운영하는 무역 회사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깨닫고 회사 수익의 일부와 교회 헌금의 전부를 선교 헌금으로 보내드림으로 본교회의 세계선교에 적극 동참하는 "보내는 청지기"로서의 두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김이폴 목사), 가라간다 - Makinsk 교회(Hon Evgenii 목사), 비시켄트 교회 (라이야 목사), 아프리카니스탄 고아원 (비타 목사), 선교사 훈련원(한국)과 장애자 무료 양로원(새빛맹인교회- 안요한 목사)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다.





## 불가리아 Bulgaria



### 개요

불가리아는 발칸 반도 남동부에 있는 공화국이다. 북쪽은 루마니아, 서쪽은 세르비아와 마케도니아 공화국, 남쪽은 그리스와 터키, 동쪽은 흑해에 접해 있다. 불가리아의 기후는 발칸 반도 기후로서 겨울 평균 기온은  $-1^{\circ}\text{C}$ , 여름 평균 기온은 약  $21^{\circ}\text{C}$ 이다. 불가리아는 1947년에 공산국가인 불가리아 인민 공화국이 성립되었다가, 1989년 민주화가 되었다. 1990년부터 대통령제를 실시했으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1997년부터 시작한 개혁으로 경제가 점차 안정되어 가며, 2007년 1월 1일에 루마니아와 함께 EU에 가입하면서 국가정치와 경제가 더욱 개방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높은 실업률로 말미암아,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업을 찾아 다른나라로 이주했다.

수도: Sofia

면적: 110,993 km<sup>2</sup>(105th)

주언어: 불가리아어

정부형태: 민주주의

인구: 120만 명(2010)

환율(현지화폐/US\$): Leb1, 49

국제전화코드: +359

인터넷 도메인: .bg

입국비자: 90일 무비자(미국, 한국여권소지자)

### 종교

정교회가 1945년까지 국교였다가, 최근 불가리아의 전통 종교로 승인되었다. 정교회 지도자들이 예전 공산주의 체제와 손을 잡으면서 나타난 심한 분열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고 훼손되었다. 복음주의는 1980년부터 서서히 성장하여, 2000년 이후에 전반적인 인구 감소에 반비례하여 계속 성장하고 있다. 한편 무슬림 선교사가 기독교 선교사보다 수자적으로 훨씬 많다.

(2011 통계): 정교 76%, 이슬람 10%, 로마 카톨릭 0.8%, 개신교 1.1%, 무종교/기타 12.1%

### 종족

미전도 종족 수: (2011 통계) 8종족(불가리아인구의 9.5%)

종족: (2011 통계) 불가리아인 84.8%, 터키인 8.8%, 로마인(집시) 4.9%, 기타 1.5%(러시아인, 아르메니아인, 그리스인)



# 불가리아

## 집시 선교의 본산지



### 파송 선교사

박정일 / 인실 선교사  
수현, 필립, 주영  
1992년 8월 파송

### 선교지 연락처

Mladost 1A, 3 Sofia Avramova St., Floor 1, Office #2, 1729 Sofia, Bulgaria  
Cell: 35-988-404-5274  
E-Mail: jip84jc@hotmail.com

### 기도 제목

1. 유럽과 불가리아를 위하여 - 유럽의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불안정한 정치와 경제가 잘 회복되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2. 불가리아에 개척된 교회를 위하여
  - 1) 지도자 양성사역인 비데오 성경학교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 2) 지도자들의 영적 성장과 성령충만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자 세미나
  - 3) 교회 부흥을 위한 평신도 양육, 전도, 찬양, 의료, 어린이 청소년 사역이 잘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 4) 교회 건축사역이 잘 진행되어 지역교회들이 예배 처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 지역 소개

공산권 개방 이후 사역은 각 지역의 지하교회에서 사명감을 가진 젊은이들을 선별하여 모스크바 신학교로 유학을 보내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하였다.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와 교회를 개척한 것이 불가리아 선교의 주춧돌이 되었으며, 현재 각 지역의 대표교회로 잘 성장하여 불가리아를 복음화시키는데 주역이 되고 있다. 그 후 불가리아 내에서 1년 반 코스의 비데오 성경학교를 실시하여 지도자 양성사역을 계속하고 있으며, 졸업생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개척된 교회들의 지도자와 교회부흥을 위해 정기적인 지도자 세미나, 양육 프로그램 및 전도사역, 의료사역, 찬양사역을 하고 있다. 앞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이 더 필요하다. 아울러 초창기부터 개척된 교회들의 예배처소 마련을 위해 건축사역을 꾸준히 하고 있다.

